

古代漆器研究總論

金 鍾 太

I. 漆器의 發見

漆器는 일찌기 靑銅器時代에 나타난 中國 最高의 手工藝術品으로서 細工·文樣·形態等은 驚嘆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精巧 妍麗한 技術의 價値는 古今을 莫論하고 높이 評價된다. 그러나 現代의 漆器 工藝는 오히려 楚漢代의 漆器 製作技術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이 方面의 研究 亦是 不進하여 別로 參考할만한 文獻도 없다.

漆字는 原來 許氏說文에 「水出右扶風杜陵岐山東入渭一曰入洛水漆聲」이라하여 물 이름을 말할뿐 漆器와 關係된 뜻은 없다. 그러나 後에 그 뜻이 增加되어 烏나무 漆· 검은(黑) 漆· 暗黑 漆等의 漆字와 같은 뜻으로 나타났으며 後에 다시 髹字와 通用하게 되었는데 髹字는 說文解字詁林에 「駟車髹飾說文無髹字· 玉篇髹同髹· 說文亦無髹字· 集韻以髹髹爲一字· 註云說文漆也· 一曰赤多黑少之色· 或从休亦省據· 此則髹髹皆髹之或體」라고 說明하여 髹· 髹· 髹 字가 모두 한 가지 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漆字와 髹字는 같은 뜻이지만 좀더 區別을 한다면 周禮春官 巾車編에 「髹飾· 註云· 髹赤多黑少之色」이라하여 髹은 赤이 많고 黑이 적은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普通 漆과 髹은 같은 뜻으로 混用하였으며 이것은 다시 漢書 趙皇后傳에 「殿上髹漆」 다음 註에 「以漆漆物謂髹許昭反· 今關東俗器物一再著漆謂之捐漆· 捐即髹聲之轉重耳· 今關西俗云 黑髹盤朱漆盤 其音如此· 兩義並通」라는 例文에서 黑은 髹이요 朱는 漆이라 하였으나 兩義는 並通한다 하였다.

漆은 本名이 漆科 植物인 漆樹(Bhusuernicifera)에서 生産하는데 그 方法은 漆樹에서 汁을 내어 그 汁 中の 酸이 空氣中の 酸素와 自然作用하여 赤黑色으로 變하여 漆이 生産된다. 이렇게 生産된 漆液에 人工을 加하여 朱· 黑· 黃· 金 四色으로 調合한 後 適所에 施用한다¹⁾. 또한 漆中에는 人體에 해로운 毒素가 있으며 이것은 漆酸含이 發揮할 때 毒素가 人體의 皮膚에 닿으면 皮膚病이 생기는데 史記 范雎蔡澤列傳에 「漆身爲厲」 다음 註에 「厲音賴病也· 言漆塗身生瘡如病賴」라는 例文으로 보아 古代에는 이 病을 漆身이라 하였다.

漆의 種類에는 生漆· 藥漆· 潢漆· 塗漆等이 있는데 生漆은 漆水에서 生産된 原漆汁을 말하고 藥漆은 生漆을 藥으로 服用하면 人體內的 寄生虫을 除去하는데 實效가 있으며 健康에 이롭다 하여 現在에도 흔히 村家에서 服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潢漆은 漆에다 金· 銀· 銅을 調合하여 金· 銀· 銅色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塗漆은 漆에다 黃土 흙을 加하여 品物에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漆器의 最早는 古記錄²⁾의 「舜作食器· 上漆黑漆」「舜作漆器· 諫者十有七人」과 詩經 宣之方的 「椅桐

1) 關野貞：樂浪時代の遺蹟 漆器篇 參照

2) 姚夢谷 談剔紅：中國國立歷史博物館 館刊 第五期



圖 1. 殷墟武官村出土 木片表面貝飾

梓漆」과 尙書 禹貢篇의 「厥貢漆絲」, 周禮春官의 「漆几」 「漆車」等과 史記 夏本記의 「其貢漆絲其篚織文」 다음 註의 「孔安國曰 地宜漆林」, 「貢漆絲繡紵其篚織絮」의 記錄들이 다. 이로서 漆器의 使用은 舜代부터 始作하였음을 記錄上으로 알 수 있고, 實證으로는 近來 考古學의 業績으로 河南省 安陽 殷墟 武官村 出土의 木片 表面에 貝飾朱漆을 볼 수 있다(第一圖). 周代에는 書經 禹貢篇에 兗州와 予州의 貢品중에 漆器가 많이 있었고 史記 貨殖列傳에 「陳夏千畝漆」 「木器槩者千枚」라는 것으로 보아 當時 漆器의 盛行을 알 수 있고 湖北 蕪春縣 毛家咀의 木造建物址에서 漆耳杯가 出土되었고 河南省 陝縣의 虢國墓에서 漆盤이 出土된 것을 비롯하여 中國 各處에서 漆器가 出土되었다. 戰國時代에는 長沙·信陽·金村·壽縣 등의 楚墓出土 漆器로 紋樣·銘文 등을 알 수 있다.

漆器가 一般生活에 重要한 位置를 차지 하게 되자 漆을 生産하는 漆林이 必要하게 되었는데 이 漆林은 처음 個人

으로부터 차차 國家에서 管理하게 되었다. 이 漆林에 對하여는 華陽國志의 「蜀地有桑漆麻紵之饒, 巴地貢納蠶桑麻紵, 永昌郡有蠶桑」과 史記 莊子列傳의 「莊子者蒙人也……名周嘗爲蒙漆園吏」 다음 註의 「括地志云 漆園故城在曹州冤句縣 北十七里 此云莊周爲漆園吏即此按其城古屬蒙縣」과 漢書 地理志補注 梁國蒙縣條에 「又有小蒙城在府南二十五里中 有漆園 莊周嘗爲漆園吏 其城亦名漆邱」³⁾ 등의 漆林에 관한 記錄이 있으며 또한 中國出土 印중에 「常山漆園司馬」라는 官人이 發見된 일이 있었다⁴⁾. 이 漆林의 稅律에 관하여는 周禮 地官載師에 「漆林之征 二十而五」라고하여 貢稅關係를 四分의 一로 定한 規定까지 보인다.

漆器는 官中 王室의 日常生活器物로 使用했기 때문에 그 價値도 높았던 것으로 鹽鐵論 卷六 散不否足 第二十九의 記錄에 「紵器金錯蜀杯夫一文杯得銅杯十賈」라는 것으로 보아 當時 漆器 一個로 銅杯 十個를 求할 수 있었음으로 漆器의 價値를 짐작할 수 있다.

II. 漆器의 製作과 工官

1) 漆器의 製作——漆器製作 方法과 技術은 殷代와 周代에 이미 完成하였다. 그것은 殷墟 武官村 出土 貝飾朱漆과 西周 木造建物址인 手家咀에서 出土된 漆杯 等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調査된 漆器 製作의 方法을 살펴보면 廣義의 製作과 狹義의 製作이 있는데 廣義는 夾紵製作·木心製作·布心製作·麻心製作等이고 狹義의 製作에는 籃胎製作·瓦胎製作·皮胎製作 등이 있다⁵⁾.

3) 蒙縣은 現 河南省 商邱縣임

4) 世界美術全集(13) 中國(2) 秦漢漆器工藝, 東京 角川書店 發行

5) 世界美術全集(13) 中國(2) 秦·漢 漆器と木工

夾紵製作에 있어서 夾字는 俠字와 뜻이 같으며 紀年漆器銘에 「造乘輿髹汨畫紵黃鈿飯盤」중의 紵字가 있는 것은 夾紵製作이나 夾麻製作의 漆器이다. 이 夾紵麻脫胎 製作方法은 同一하며 이것에 對하여는 中國 譚且岡 教授의 調査가 詳細하여 그 本文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⁶⁾.

「第一步，以紵麻爲胎型·第二步，以細，磚瓦灰調漆刮灰底，但僅刮一二次·第三步，在底漆上打磨後，於外壁蓋面及底面，先塗油炘，後髹漆，保其黑度，器內壁蓋裏及底，均髹朱漆，所髹的漆，俗稱熟漆(將漆熬過，再加生漆)內混合有百分之四十的桐油，全體僅髹一次至二次，並無研磨工作，因混合有桐油，故其漆面有油光，與推光漆之光，顯然不同·第四步，外面文飾，用朱黃綠白四色，朱色取材爲硃朱，黃爲石黃，綠係何種材料待考，但斷非石綠，白似爲鉛粉，朱黃係混漆與桐油調製，綠與白純用桐油，文飾上皆爲平書，即於彩色調製後描繪而成·這種技法雖甚簡單，然在二千多年前漆工技術已有如此成就，文樣如此精美，實堪驚嘆。」

以上の 例文 內容과 漢代 漆器 銘文에서 보이는 製作工을 比較해 보면 第一步는 造工，第二步는 汨工，第三步는 髹工·汨工·淸工，第四步는 塗工·畫工 등으로 생각된다.

布心製作은 布를 心으로하여 漆로 굳힌 다음 文飾을 내는 方法이다. 「用有布爲心，上邊塗漆，即後所謂夾紵及平脫」⁷⁾라는 例文에서 布心製作의 漆器라도 결국 부르는 夾紵 또는 平脫이라고 함을 알 수 있다. 漆器가 高級일수록 夾紵製作이며 따라서 값도 비쌌던 것이다.

木製作方法은 木을 心으로하여 陰刻 또는 畫筆로 紋樣을 그리고 髹漆을 하는데 이것은 樂浪出土 漆器 銘文에서 「造乘輿髹汨畫木黃耳椀」의 木字가 있는 漆器는 木心製作이다. 대개의 漆器는 木心製作인데 近間 智理山 山間에서 亦是 在來式 木心漆器를 製作하는데 그 手法이 古代 漆器製作과 같은 樣相을 볼 수 있다. 1964年 筆者의 現地 調査에 依하면(慶尙南道 咸陽郡 馬川面 木物工場) 現在 韓國 山間地의 漆器製作 過程은 처음 器物에 적합한 나무를 擇하여 乾燥한 다음 器物의 形態를 만드는데 이 過程을 漢代 漆器銘文 製作工과 比較하면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原木을 器物形態로 만드는 過程이 造工·汨(雕)工，再別 손질은 素工에 해당하며 紋樣을 陰刻하거나 畫筆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畫工이라 하며，漆髹을 하는데 있어서 髹工，髹工，擘工，敷工 등은 모두 같은 뜻으로서 古代의 記錄이 일정치 않으며，마지막 광칠(光漆)을 하는데 이것을 靑工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金銅鈿黃의 配合術이 古代 漆器에서 高度로 發達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現在는 이것을 「金物」이라하여 別造品인 金物로 器物에 使用하지만 古代에는 金銅鈿을 漆과 잘 調合하여 使用하였는데 이것을 銅鈿黃塗工이라 하였다.

다음 狹義 漆器製作 即 漆을 使用하여 器物에 紋樣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極히 少數에 不過하나 그 作品들은 傑作이다.



圖 2. 樂浪彩篋塚出土 彩篋

첫째로 籃胎製作이 있는데 이것은 대(竹)나 버들(揚) 등으로 바구니같은 器物을 만들어 髹漆한 다음 紋樣을 그리는데 그 代表的인 作品으로는 樂浪古墳 彩篋塚出土 彩篋(第二圖)과 彩漆漆筒等이다.

6) 譚且岡：楚漆器，大陸雜誌 第六卷一期
7) 虔君寬：中國美術史論集(1) 漆器參照

둘째는 瓦胎製作 方法인데 이것은 陶器 위에 髹漆을 하여 紋樣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皮胎製作인데 이것은 가죽을 漆液으로 굳힌 다음 紋樣을 그려 器物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第三圖). 이 외에 靑銅器위에 漆紋을 그려 使用했던 흔적이 戰國時의 靑銅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 漆器와 工官——古代 記錄에서 보이는 漆器製作은 처음 民間에서 만들었으나 차차 工官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史記 夏 本記의 「工官之製亦不能免，於是工管之設初，蓋以供民用，然其後在上者威權日增」의 記錄에서 말해주듯 처음 工官設置初에 工官製品이 能하지 못하여 民用 品物을 供給받았는데 차차 工官의 權威가 발달되어 奉君의 專用이 되었다⁸⁾. 그 後 工官製作의 器物은 民間製作 器物보다 優秀함을 알 수 있는데 史記 絳侯世家에 「可以葬者，取庸苦之不予錢庸知，其盜買縣官器」에서 工官器를 盜買하는 狀況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民間에서 漆器를 안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漢代 紀年漆器銘文에서 杜氏作，王氏作，李氏作 등의 個人作의 漆器가 있었으므로 民間製作의 可能도 證據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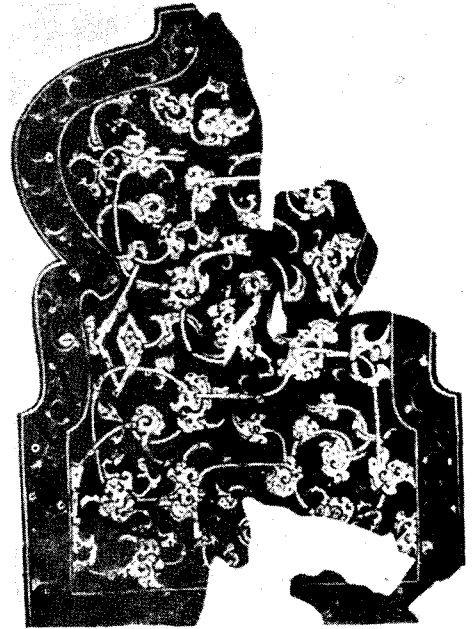


圖 3. 皮胎 製作漆器

工官은 原來 前漢 中葉까지 계속되었으나 尙方이 設置된 後 곧 尙方의 工所가 되었다. 史記 絳侯世家傳에 「工官即尙方之工所，作物屬尙方，故云工官尙方」라는 記錄이 보인다. 또 漢書 百官志에 「王莽改少府曰共工」이라 하여 王莽時代에는 少府를 共工으로 改稱하였다.

工官의 運營에 關해서는 漢書 貢禹傳에 「工各數千人，一歲費數鉅萬，蜀廣漢主金銀器，歲各用五百萬，三工官官費五千萬」다음 註에 「如淳曰，地理志，河內，懷蜀郡，城都廣漢，皆有工官，工官主作漆器物者也，師古曰，如說非也，三工官 謂少府之屬官考工室也，右工室也，東園匠也，上記言蜀漢主金銀器是不入三工之數也。」이라 있어 위의 記錄에서 各 工官에는 數千의 工人이 있었고 一年의 費用이 鉅萬이었으며，蜀郡과 廣漢郡의 工官 一年費가 各各 五百萬이며，官費가 五千萬이었다. 또한 三工官에 對하여 問題되는 것은 魏의 如淳說에 의하면 河內의 懷縣과 蜀郡의 成都와 廣漢이 三工官이라 하였는데 師古는 三工官을 考工室，右工室，東園匠이라 하였다. 그러나 漆器에 있어서 工官은 如淳說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樂浪古墳出土 紀年漆器에 「廣漢郡工官」「蜀郡工官」等 銘이 出土되기 때문에 廣漢과 蜀郡(成都)의 地名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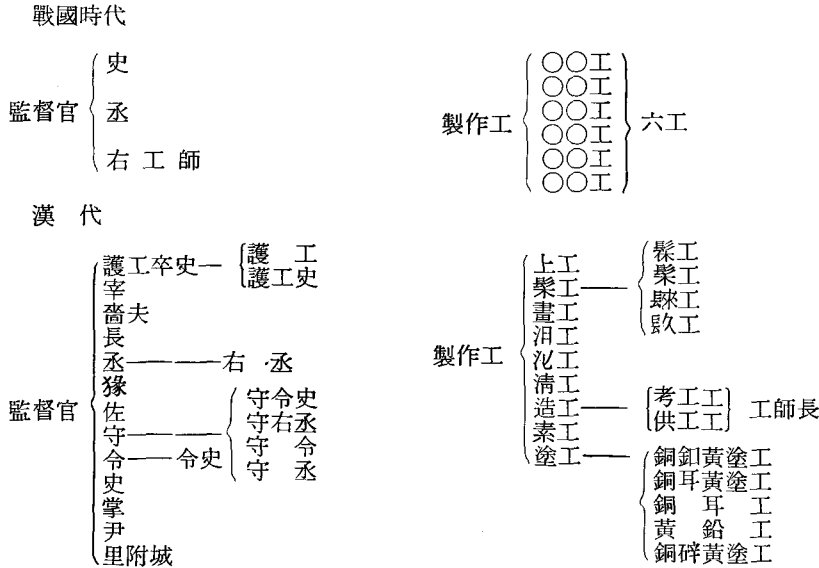
工官은 그 始元이 古代로부터 始作하여 周代에 와서는 記錄을 볼 수 있고，戰國時代에는 長沙出土 戰國時代 楚漆奩 銘文에 「右工師象」이라는 文句로 보아 工官의 實證을 볼 수 있다.

또한 記錄에 보이는 漆器製作所는 南陽郡의 宛縣，濟南의 東平縣，潁川의 陽翟，河內의 懷顯，泰

8) 先秦史 第12章 工業，臺灣開明書店印行

山郡의 奉高縣, 蜀郡의 成都縣, 廣漢郡의 雒縣 등이 보이나⁹⁾ 實例로 볼 수 있는 確實한 根據는 樂浪古墳出土 漆器銘文에 보이는 蜀郡의 成都와 廣漢郡의 雒縣뿐이다.

工官의 官職關係는 紀年漆器에서 詳細하게 알 수 있는데 戰國時代와 前漢의 始元·永光·河平 間에는 簡素化하였으나 차차 監督者의 官名과 製作工의 人名 등이 復雜하게 되었다. 이것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官職表를 보면 이미 戰國時代 工官의 漆器製作工의 技術 分擔이 六個部分으로 이루어져 各各의 技巧을 發揮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漆器를 最高의 工藝品으로 發達되게 한 原因이 되었다.

Ⅲ. 漆器出土의 現況과 種類

(1) 戰國以前

學術調査에 依하여 지금까지 發表된 漆器 出土의 現況을 살펴보면 安陽 殷墟의 小形 土坑堅穴墓에서 出土된 木片 表面의 貝飾朱漆의 遺例가 있으며¹⁰⁾ 周代와 戰國時代의 漆器는 多數의 完器가 輝縣·洛陽·金村·信陽·壽縣·長沙 等地에서 出土되었다. 周代의 漆器는 湖北 蕪春縣 毛家咀의 木造建物址에서 漆耳杯가 出土되었고 河南 陝縣의 魏國墓에서 漆盤이 出土되었으며 輝縣에서 漆塗 木材가 二次大戰中에 發見되어 瑞典의 東洋博物館과 日本의 帝室博物館에 分藏되어 있으며 또 東京 大倉集古館에 所藏되어 있는 夾紵大鑑이 있다¹¹⁾.

9) 梅原末治：支那紀年漆器圖說 後記 參照

10) 世界美術全集(12) 中國(1) 殷·周·戰國

11) (1) 周漢遺寶 昭和七年(1932年) 東京帝室博物館刊

(2) 水野清一·梅原末治：河南輝縣出土의 夾紵大鑑に就て 國華 第四二編 第七册.

(3) O. Karlbek Notes on the Archaeology of china(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 2, Stockholm 1930)



圖 4. 金村出土 木台金銅彩紋黑漆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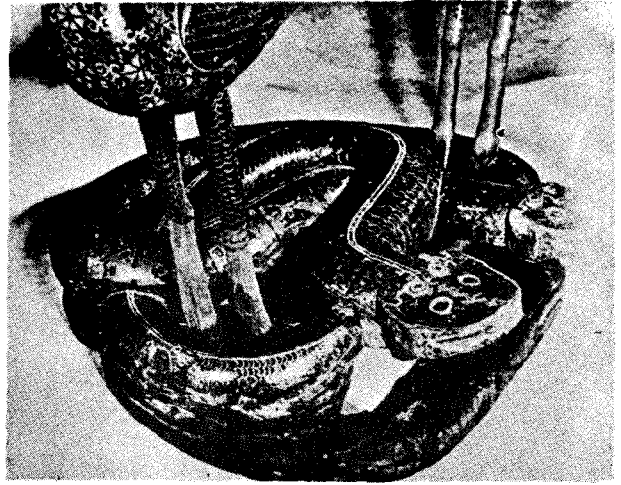


圖 5. 長沙出土 雙鶴雙蛇

戰國時의 漆器는 洛陽 金村出土 木台金銅彩紋黑漆壺(第四圖)가 日本 神戶市 白鶴美術館에 所藏되어 있는데 이 金村墓群은 學術調査가 아니고 二次大戰 混亂期에 모두 盜掘이기 때문에 古墳의 形態等이 詳細치 못하나 出土 遺物을 參考하여 戰國時代의 漆器들임에 틀림없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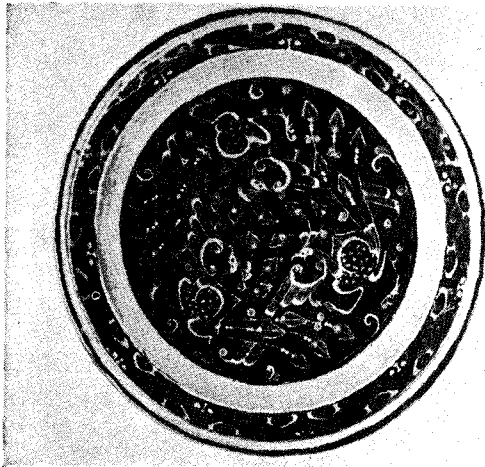


圖 6. 長沙出土 孔雀紋漆奩



圖 7. 西王母圖 漆器

安徽省 壽縣出土 漆器는 靑銅器와 함께 發見되었는데 처음 朱永祥氏가 指摘하여 곧 中央研究院의 李景駟, 李三孤 兩氏가 遺蹟을 調査하던중 卮龍華紋의 漆棺材를 얻어 當時 南京으로 옮겼었다¹³⁾.

長沙는 戰國時代 楚文化領域에 屬하는 곳으로 中國南部를 通하는 重要한 要塞地로서 本來 秦始皇 二十五年에 長沙郡을 設置하였고 漢 高祖 五年에 長沙國이 되었으며 王莽時代에는 荊州에 예속시켰는데 長沙는 地理的으로나 軍事的으로나 重要한 곳이었다. 現在에도 長沙市 東北方에 戰國時代와 漢代 古墳群이 많이 있는데 이 古墳은 二次大戰時에 大部分 盜掘되어 많은 遺物이 海外로 流出되었다.

12) 洛陽金村古墓聚英 昭和十二年(1937年) 京都小林製版印刷所刊

13) 李景駟：壽縣楚墓調查報告 田野考古報告 第一冊 民國 25年(1936年)



圖 8. 梧野里古墳出土 人物漆器殘片

클리브랜드 미술館(Cleveland museum of art)에 所藏되어 있는 雙鶴雙蛇(第五圖)를 비롯한 木彫漆器들이 發見되어 學界에 注目을 끌었는데 其中 孔雀紋 漆奩(第六圖)은 長沙出土의 漆器중에 最高의 傑作品이다¹⁵⁾.

長沙古墳은 亦是 當局에서도 重要視되어 1953年 長沙市 南門外의 仰天湖木 槨墓 發掘과¹⁶⁾ 1957年의 長沙發掘調査¹⁷⁾ 그리고 1959年의 發掘¹⁸⁾ 등이 活潑하게 進行되어 學界에 發表되었다.

信陽은 河南省 南部에 位置하는 都市로서 信陽近郊 長台關 西北 4km 地點 岳陵에 六基의 大古墳이 있고 東北部에 楚王城과 太子城 이라고 傳하는 古城이 있다. 이 信陽古墳은 1956年 3月과 5月에 河南省 文化局에서 第一墓를 發掘하였고 1958년에는 第二墓를 發掘하여 많은 漆器를 얻었다¹⁹⁾.

14) (1) 商承祚: 長沙古物聞見記, 1939年

(2) 譚旦岡: 楚漆器, 大陸雜誌 第六卷一期

15) (1) 水野清一·梅原末治: 傳長沙出土의 漆畫雙鶴雙蛇に就いて, 美術研究 第七二號 昭和十二年二月

(2) 梅原末治: 湖南長沙古墳の一括遺物について, 東洋史研究 第六卷二號

(3) Howard C.Hollis.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Oct. 1938 Cranes and serpents.

(4) John Hadleycox. An Exhibition of chines antiquities from chang-sha 1939.

16) 1953年 長沙市 南門外 仰天湖 木槨墓發見, 河南文化局調査

17) (1) 吳銘生: 長沙楚墓出土의 漆器, 文物參考資料 1957年 7期

(2) 吳銘生: 長沙出土의 三座大型木槨墓, 考古學報 1957年 第 1 期

18) (1) 文道義: 長沙楚墓, 考古學報 1957年 第 1 期

(2) 世界美術全集(12), 中國(1) 殷·周·戰國 184頁 參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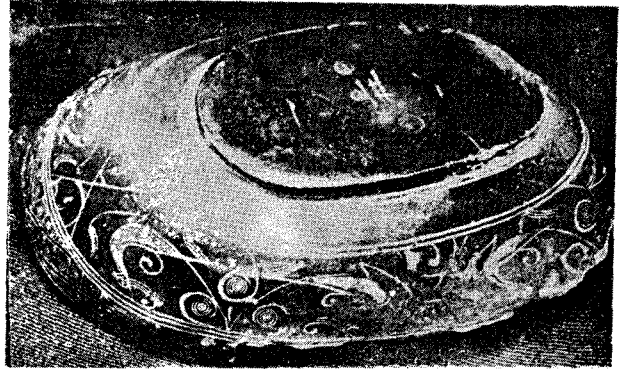


圖 9. Noin-Ula 出土建平五年金鈿釦漆耳杯

長沙出土 漆器의 學術的인 調査의 始作은 1926年 中國 金陵 大學 商承祚教授가 長沙를 지나다 우연히 古物出土의 소식을 듣고 調査하여 1939年에 「長沙古物聞見記」二卷을 發行하면서 부터 始作되었다¹⁴⁾.

이후 1934年 戰亂中에 美國人 John Hadleycox씨가 蒐集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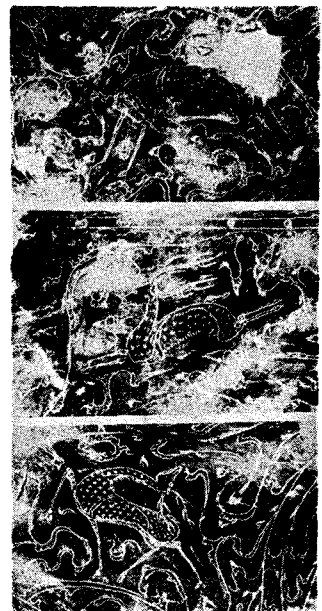


圖 10. 陽高縣出土 刻線鹿畫

(2) 漢代

漢漆器出土의 最初는 1912年 9월에 日人 濱田博士가 滿州 遼東省 營子牧城에서 漢墓出土 漆器殘片을 調査함으로써 始作되었다. 濱田博士는 이곳에서 出土된 漆器의 寫眞과 資料를 論文으로 發表하였는데 이 論文은 中國을 莫論하고 漆器에 관한 最初의 論文이 된다²⁰⁾.

漢代 漆器는 大部分 樂浪古墳에서 出土되었는데 樂浪古墳의 最初의 紀年漆器는 始元 2年銘 漆耳杯(前漢武帝 B.C. 85)이고 最後의 漆器는 後漢 永元 14年銘 漆耳杯(後漢, 和帝, 90 A.D.)이다.

樂浪遺址 漆器의 學術調査는 1909년에 最初로 實行하여 1916년에 關野貞博士가 貞柏里와 石岩里古墳 十基를 發掘하여 居攝三年(前漢 孺子嬰, 8 A.D.) 紀年 漆器를 調査하였다²¹⁾.

1924년에는 朝鮮總督府에서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面 石岩里의 古墳을 發掘하였고²²⁾ 1925년에는 東京帝國大學文學部 考古學室에서 石岩里의 王旰墓를 發掘하여 西王母圖 漆器(第七圖) 등을 調査하였으며²³⁾ 1930년에는 朝鮮總督府에서 梧野里의 古墳群을 調査하여 永平十四年銘(後漢 明帝, 71 A. D.) 漆耳杯·人物漆器殘片(第八圖) 및 杜氏作馬脚案 등을 發掘하였다²⁴⁾. 1930年秋에는 朝鮮古蹟研究會에서 南井里의 彩篋塚을 發掘하여 彩篋孝子傳圖(第一圖)와 漆案 등을 調査하여 學界에 注目을 끌었고²⁵⁾ 1935년에는 朝鮮古蹟研究會에서 貞柏里의 王光墓를 發掘하여 大甲等을 調査하였다²⁶⁾.

以外에도 朝鮮總督府에서 行한 土城里·坡長里·助王里·柳寺里·長梅里 等地의 發掘에서 많은 紀年漆器가 出土되어 斯界研究에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였다.

1924년에는 外蒙古의 Noin-Ula地方의 漢古墳을 쓰린 學者 P.K Kozlov씨가 發掘하여 建平五年金銅釘漆耳杯(前漢 哀帝 B.C. 2)(第九圖)를 調査하여 學界에 發表하였고 그 後 1927년에 外蒙古 學者들이 다시 Noin-Ula 古墳을 發掘하여 亦是 建平五年金銅釘漆耳杯을 調査하였다²⁷⁾.

1937年과 1941년에 萬安의 古墳을 日本學者들이 發掘하여 漆奩 등을 얻어 學術論문을 發表하였고²⁸⁾ 그 다음 해에는 陽高縣의 漢墓 三基를 發掘하여 刻線鹿畫(第十圖) 등을 發掘하였다.

- 19) (1) 王世襄：信陽戰國楚墓出土 樂器初步調査，文物參考資料 1958年 1期
- (2) 賀官保：信陽長台關 第 2 號 楚墓의 發掘，考古通訊 1958年 第11期
- (3) 文崇一：楚文化研究，中央研究院 民族學術研究所刊 民國 56年(1967年)
- 20) 濱田耕作：南滿州に於ける考古學研究，東洋學報 第 2 卷 3 號及 第 3 卷第 1 號
- 21) 關野貞：樂浪郡時代の遺蹟
- 22) 朝鮮總督府：大正 13年度 古蹟調査報告
- 23) 東京帝國大學文學部：樂浪古蹟發掘，史學雜誌 第37編 第 1 號
- 24) 朝鮮總督府：昭和 5年度梧野里古蹟調査報告
- 25) 小泉顯夫·澤俊一：樂浪彩篋塚，朝鮮古蹟研究會刊 昭和 12年 3月(1936年)
- 26) 樂浪王光墓，昭和 10年(1935年) 朝鮮古蹟研究會刊
- 27) (1) 梅原末治，北蒙古發見の漢代の漆器，大阪毎日新聞 昭和 3年 4月(1928年)
- (2) 松本信廣·梅原末治：北蒙古—ノインウラ(Noin-Ula)の遺蹟，史學第 8 卷 第14號
- (3) E.A. Voretzsch: Ancient chinese Lacquer(Eastrn art Vol III)
- (4) P.K. Kozlov: Comptes rendus des Expéditions pour l'exploration du nord de la mongolie Leningrad 1925
- (5) W.Perceval Yetts: Discoveries of the kozlov Expedition(The Burlington magazine April 1926)
- (6) Otto kummel: Chinesische kunst(Berlin 1930)
- (7) Camilla Trever: Excavations in northern mongolia(Leningrad 1932)
- 28) (1) 張維華：懷安漢墓發掘訪問記，禹貢 第七卷 八·九期 民國 26年(1937)
- (2) 長廣敏雄：雲崗から 萬安へ，東洋史研究 第七卷 二·三號

1930년에는 新疆省 漢塚亭 遺址에서 中國人 黃仲良等이 漢龍年號가 있는 木筒과 함께 漆器 多數를 發掘하여 學界에 紹介하였다²⁹⁾.

以外에도 許多한 漆器가 盜掘되어 海外에 流出되었는데 그중 山東出土라고 傳하는 漆奩이 日本 京都 藤井氏所藏으로 되어 있으며 江蘇 海州出土로 傳하는 漆耳杯가 英國 大英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³⁰⁾

(3) 漆器의 種類

漆器는 古代부터 王室의 用具로서 靑銅器와 함께 發達되어 왔으며 그 紋樣의 技巧와 彩色의 洗鍊된 筆致는 後漢 및 六朝까지 계속 되었다. 따라서 그 種類에 있어서도 生活에 必要한 用具에 따라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戰國時代——彩奩·案·盤·羽觴(杯)·果盒·壺·木瑟·編鍾臺·木鼓臺·木鎮墓獸·双虎双鳳·双鶴双蛇·木棺·木俑·簠·劍鞘·漆戈戟.

漢代——木棺·長方盆·漆奩·盤·耳杯·杆·杖·馬脚案·盥·杓·折込脚附几·匣·彩篋·壺·盒·履函·盂·器臺·博山爐·燭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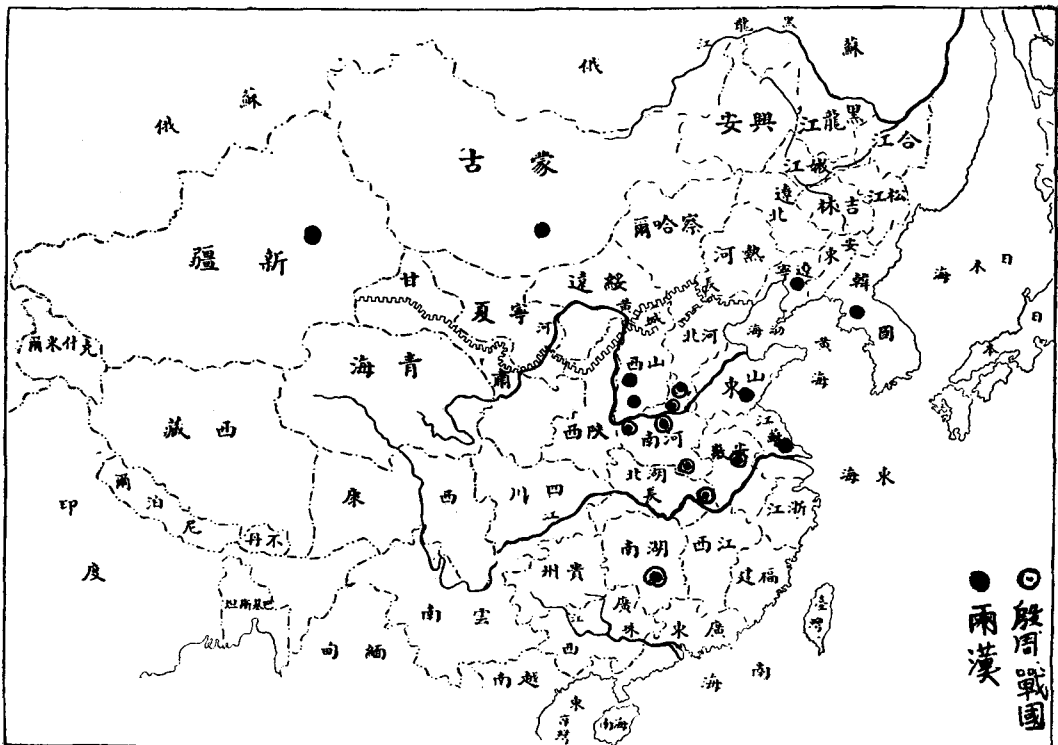


圖 11. 漆器出土地 分布圖

29) 虞君寬：中國美術史論集(1) 秦漢美術 漆器篇參照

30) (1) 梅原末治：支那漢代紀年銘漆器圖說，東京帝國大學文學部 考古學資料叢刊 第二册

(2) 中華國寶 下輯 漆器篇，民國 59年(1970年) 臺灣國際出版社